

영국 전역 ‘세계 책의 날’ 행사 풍성하게 열려

‘잠자리 독서 캠페인’ 등 독자들의 관심 끄는 행사 줄이어

김지원 | 출판칼럼니스트

재잘대는 아이들 학교길에 영화 촬영장 같다. 해리 포터처럼 이마에 번개 마크를 새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백설공주 드레스를 입거나, 피터팬의 타이즈차림을 한 아이도 보인다. 아예 빨간 두건의 욕심쟁이 늑대로 분장한 아이도 있다. 책 속 주인공이 되는 날의 풍경이다. 봄기운에 꽃망울이 터질 무렵, 영국에선 책과 관련된 온갖 행사들이 학교 안팎에서 이어진다.

학교와 도서관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사 열려

오는 4월 23일은 ‘세계 책의 날’이다. 원래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지방에서 성 조지의 날에 사랑하는 이에게 책 한권과 장미 한송이를 선사하면서 생겨난 풍습을 유네스코가 ‘세계 책의 날’로 정했다. 영국에서 5년 전부터 치러온 이 행사는 해를 거듭하면서 규모가 더욱 커져, 지난해에는 수천개를 헤아리는 행사가 학교와 도서관을 중심으로 열렸다. 이날 모인 자선기금으로 75만여권의 책을 전세계 60여 개국에 기증했는데, 현재까지 2억7천만원 이상의 기금이 모였다.

1월 중순부터 각급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여러 독서 아이디어와 수업에 필요한 독서프로젝트안, 전시 자료들의 정보가 한아름 담긴 ‘책꾸러미’를 지원한다. 런던 도서관은 ‘당신의 입술을 열어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 ‘큰소리로 책읽기’를 장려한다. 버밍엄은 버스를 이용해 ‘움직이는 시’ 행사를 연다. 도서관품권처럼 생긴 1파운드짜리 ‘북토큰’을 서

점인 중심의 기금으로 발행해 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나눠주는데, 1파운드짜리로 특별출간된 다섯권 가운데 한권이나 ‘수퍼 독서 21권’ 가운데 한권으로 바꿀 수 있다.

‘독서 장면 살짝 엿보기’는 유명인들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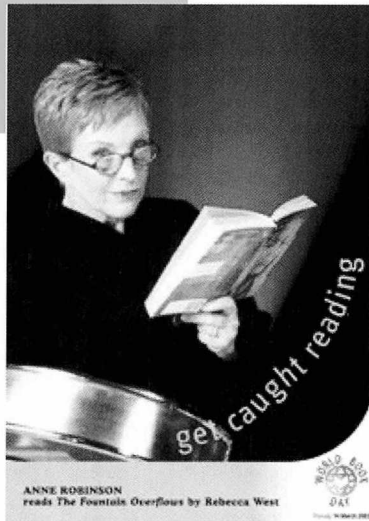
읽는 재미난 모습을 포스터로 만든 것. 지난 해엔 요리책 돌풍을 몰고온 제이미 올리버 등이 등장해 4억5천만원 상당의 광고 효과를 얻었다. 올해도 퀴즈 프로그램 사회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앤 로빈슨 등의 독서장면이 포스터로 만들어진다. 8장짜리 한세트를 1만8천 원에 판매하기도 하지만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걸어놓을 수도 있다.

하이라이트는 ‘잠자리 독서 캠페인’

행사 하이라이트는 ‘잠자리 독서 캠페인.’ 잠들기 직전 20분간 책읽기 운동이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각종 행사와 함께 벌어진다. 물론 이를 위해 잠잘 때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연령별, 주제별로 나눈 도서목록도 추천한다. 예를 들면 ‘잠을 확 달아나게 하는 으스스한 이야기’ 앤 스티븐 킹의 《드림 캐처》가,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하여’ 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들어 있다.

도서관에서는 ‘잠자리 독서 주간’에 세가

지 주요 행사를 벌인다. 하나는 ‘꿈을 엮는 실험’이다. ‘우리가 읽은 책이 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제로 스완시대 심리학과와 함께 자기 전 읽은 책과 꿈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스틸러물을 읽으면 끔찍한 악몽을, 연애소설을 읽으면 달콤한 환상을 꿈에서 경험하게 될까? 이 흥미로운 실험은 3월 12일 ‘도서관 과학의 날’에 이뤄질 예정이며, 5월 중순에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독서장면 엿보기’ 포스터에 나온 퀴즈 프로그램 사회자 앤 로빈슨.

‘베갯머리 친구’ 행사는 각 지역 유명인들이 잠자리에서 무슨 책을, 누구의 작품을 읽는지 알아보는 행사다. 가장 재미난 이벤트는 ‘잠옷 독서 파티’다. 가구점의 후원으로 널찍한 침대를 각 도서관에 직접 들여다놓고 잠옷으로 차려입은 사서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족단위로 독서파티를 연다. 이런 행사는 지역 신문의 표지이야기로 대서특필된다.

이밖에도 ‘가장 멋진 표지 디자인 대회’를 여는가 하면, ‘단어 찾기’ ‘이야기 쓰기’ ‘책 읽어주기’ ‘책 속 등장인물 가장행렬’ 등의 풍성한 행사가 서점과 학교에서 줄을 잇는다.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런던 북페어’에 바통을 넘기게 되면, 이래저래 3월은 영국에서 독서의 달인 셈이다. ■